

# 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16. 11

5<sup>nd</sup> Week

## 목 차

1. ATIS와 Auto-ISAC, 커넥티드카 사이버보안 협력 체결
2. 유로스마트, IoT 사이버보안 관련 위원회 결성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게시물 보기 :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 1. ATIS와 Auto-ISAC, 커넥티드카 사이버보안 협력 체결

(ATIS Forms Alliance with Auto-ISAC to Advance Connected Vehicle Cybersecurity)

보도날짜 2016.11.8.

출 처 ATIS

사 이 트 [http://www.atis.org/01\\_news\\_events/pressroom/2016/11/atis-forms-alliance-automotive-information-sharing-analysis-center-advance-connected-vehicle-cybersecurity.asp](http://www.atis.org/01_news_events/pressroom/2016/11/atis-forms-alliance-automotive-information-sharing-analysis-center-advance-connected-vehicle-cybersecurity.asp)

- 2016년 11월 8일, ATIS와 Auto-ISAC는 커넥티드카 사이버보안을 위한 협력 체결
  - ATIS는 Auto-ISAC와의 협력 작업으로 커넥티드카 사이버보안 사업과 커넥티드 교통수단의 사이버보안 문제 개선에 대하여, ICT 산업과 자동차 기존 부품 제조사(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간의 직접적 대화를 이끄는 데 주도함
  - Auto-ISAC(Automotive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은 커넥티드 교통수단의 사이버 취약점과 위협 등을 산업계 전반에 공유하는 핵심적 조정 및 커뮤니케이션 기관으로, 15개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하여 정보보안의 대안을 공유하는 센터임
- ATIS는 이번 협력 체결을 위하여, 커넥티드카의 통신 경로의 분석을 완료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망을 포함한 사이버보안의 위협 모델을 개발하여, 관련 문제의 해결책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번 Auto-ISAC와의 협력에서 중요 목표는 차량 생태계의 모든 ICT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들을 정의할 수 있는 산업 간의 협상을 지원하는 것임
- ATIS 회장인 수잔 밀러(Susan Mill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ATIS는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산업 간 조정이 충분히 중요한 작업임을 인지하며, Auto-ISAC와 ICT 산업에 사이버보안에 대한 즉각적 접근법 공유에 Auto-ISAC가 전략적 파트너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 ATIS는 ICT 산업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커넥티드카 플랫폼과 같은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행과 보안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것임

## 2. 유로스마트, IoT 사이버 보안 위원회 결성

(ITU standardization takes up strong position to power the smart 5G era)

보도날짜 2016.10.28.

출 처 Security Document World. com

사 이 트 <http://securitydocumentworld.com/article-details/i/12945/>

- 2016년 10월 28일, 유로스마트<sup>1)</sup>는 유럽 IoT 트러스트라벨(trust label)과 보안증명서 발급 촉진 등과 같은 유럽 내 사이버보안의 강화된 프레임워크를 요구함
  - 최근 분산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은 미국 내 사이버보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IoT 생태계 보호와 전체 인터넷 비즈니스 사용에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유로스마트는 유럽 전역에 걸쳐 사용될 IoT 보안 표준 제공을 위하여 유럽 사이버 보안 기관(ECSO, European Cyber Security Organisation)<sup>2)</sup>의 창립을 지지하였음
- 유로스마트는 모든 IoT 제공자의 사이버보안 트러스트라벨 또는 보안증명서를 옹호하며 데이터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IoT 제공자의 이용까지 그 범위가 넓음
  - 유로스마트는 안전한 IoT 환경에 최대한 기여하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특히, 유럽 사이버 보안 기관(ECSO)의 회원으로써 신규위원회인 IoT 위원회 설립과 전문 회원들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유로스마트의 'IoT 보안 위원회'의 목적
  - IoT 기기가 직면하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체 평가 방법론(self-assessment methodology) 공급업체를 제공함
  - 각 위험에 적합한 보안 솔루션의 포트폴리오 제안함
  - 최종 사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는 IoT 트러스트 라벨 구현을 위하여 유럽 위원회와 밀접하게 작업함

1) 유로스마트(Eurosmart): 유로스마트는 적대적인 환경 내에서 디지털 보안 관리 전문가들과 국제 기술 제공 업체들이 모인 협회임. 본 협회 회원들은 유럽인의 공통된 디지털 단일 시장의 업적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디지털 보안 산업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전세계 리더십과 전문가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유로스마트 설립된지 20년이 되었고, 사무국은 브뤼셀에 위치함 [출처: <http://www.eurosmart.com>]

2) 유럽 사이버 보안 기관(ECSO, European Cyber Security Organisation): 벨기에 법률에 따라 2016년 6월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사이버보안 분야의 민간 계약적 파트너십 이행으로, 유럽위원회와 같이 산업을 이끄는 대표기관임. ECSO 회원은 대기업, SME, 스타트업, 연구소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유럽 경제지역(EEA)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및 H2020과 국가적으로 관련이 있음 [출처: <http://www.ecs-org.eu>]

## 기타 소식

### 오픈데이터 표준 기관, 오픈데이터 표준 협의체 'Identify-org' 발족

- ▶ 출처 : <https://joinup.ec.europa.eu/community/opengov/news/identify-org-launched-better-identify-organisations-through-open-data> (2016.11.1.)
- 2016년 11월 1일, 오픈데이터 표준개발기관들은 오픈데이터 표준 협의체인 'Identify-org'를 발족함
- 이번 협의체는 더 나은 식별기관으로써 오픈데이터의 공개코드 목록 구현을 목적으로 IATI(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오픈 계약 파트너십( Open Contracting Partnership), 360Giving, JUDS(Joined Up Data Standards), Initiative for Open Ag Funding에서 이번 신규사업에 참여하였음

